

창세기

천지창조

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. ¹○ ²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, 어둠이 깊을 위에 있고, "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.

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"빛이 생겨라" 하 ³ 시니, 빛이 생겼다. ○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 ⁴ 에 좋았다.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, ○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, 어둠을 밤이라고 하 ⁵ 션다.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, 하루가 지났 다.

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"물 한가운데 창 ⁶ 공이 생겨,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" 하셨다. ○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서, 물을 ⁷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, 그대로 되었다. ○ 하나님이 창공을 ⁸ 하늘이라고 하셨다.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, 이튿날이 지났다.

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"하늘 아래에 있 ⁹ 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, 물은 드러나거라" 하시니, 그대로 되었다. ○ 하나님이 물을 땅 ¹⁰ 이라고 하시고,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.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. ○ 하나님이 말씀하 ¹¹ 시기를 "땅은 푸른 움을 돌아나게 하여라. 씨 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돌아나게 하여라" 하시 ¹² 니, 그대로 되었다. ○ 땅은 푸른 움을 돌아나 게 하고,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,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 로 돌아나게 하였다.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. ○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, 사흘날이 지났 ¹³ 다.

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"하늘 창공에 빛 ¹⁴ 나는 것들이 생겨서, 낮과 밤을 가르고, 계절 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. ○ 또 하 ¹⁵ 늘 창공에 있는 빛나는 것들은 땅을 환히 비추 어라" 하시니, 그대로 되었다. ○ 하나님이 두 ¹⁶ 큰 빛을 만드시고, 둘 가운데서 큰 빛으로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, 작은 빛으로는 밤을 다 스리게 하셨다. 또 별들도 만드셨다. ○ 하나 ¹⁷ 님이 빛나는 것들을 하늘 창공에 두시고 땅을 비추게 하시고, ○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 ¹⁸ 며,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. 하나님 보시 기에 좋았다. ○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, 나 ¹⁹ 홀날이 지났다.

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"물은 생물을 번 ²⁰ 성하게 하고, 새들은 땅 위 하늘 창공으로 날 아다니라" 하셨다. ○ 하나님이 커다란 바다 ²¹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 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, 날개 달린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. 하나님 보시기 에 좋았다. ○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풀 ²² 시면서 말씀하시기를 "생육하고 번성하여 여 러 바닷물에 충만하여라. 새들도 땅 위에서 번 성하여라" 하셨다. ○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 ²³ 니, 다섯날이 지났다.

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"땅은 생물을 그 ²⁴ 종류대로 내어라.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" 하시니, 그대로 되었다. ○ 하나님이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, ²⁵ 짐승들도 그 종류대로, 들에 사는 모든 길짐승 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. 하나님 보시기에 좋 았다.

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"우리가 우리의 ²⁶

7. 또는 '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' 또는 '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셨을 때에' 8. 또는 '하나님의 바람' 또는 '강한 바람'

형상을 따라서, 우리의 모양대로 「사람을 만
들자. 그리고 그가,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
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
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」 하시고,
27 ○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「사람을 창조하
셨으니,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
셨다.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
28 셴다. ○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.
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“생육하고
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. 땅을 정복하여라.
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
29 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” 하셨다. ○ 하
나님이 말씀하시기를 “내가 온 땅 위에 있는
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
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. 이것들이 너희의 먹
30 을 거리가 될 것이다. ○ 또 땅의 모든 짐승과
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, 곧
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
31 을 거리로 준다” 하시니, 그대로 되었다. ○ 하
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, 보시기
에 참 좋았다.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, 옛날
날이 지났다.

1 **2**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
2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. ○ 하나님은 하
시던 일을 ‘옛날까지 다 마치시고, 이렛날
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.
3 ○ 이렛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
손을 떼고 쉬셨으므로, 하나님은 그 날을 복되
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.

에덴 동산

4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
5 다.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에, ○
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,
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, 땅에는 나무
가 없고,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돌아나지

6 없었다. ○ 땅에서 물이 솟아서, 온 땅을 적셨
다.

7 주 하나님이 “땅의 흙으로 「사람을 지으
시고,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,
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.

8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
9 일구시고,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. ○
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, 열
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,
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
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.

10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
시고,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
11 강을 이루었다. ○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,
12 금이 나는 하벨라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. ○
그 땅에서 나는 금은 질이 좋았다. 브들라라는
향료와 홍옥수와 같은 보석도 거기에서 나왔
13 다. ○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, 구스 온 땅
14 을 돌아서 흘렀다. ○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
스인데, 앗시리아의 동쪽으로 흘렀다. 넷째 강
은 유프라테스이다.

15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
16 두시고, 그 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. ○ 주
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. “동산에 있는 모
든 나무의 열매는,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
17 라. ○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
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. 그것을 먹는 날에
는,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.”

18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. “남자가 혼자 있
는 것이 좋지 않으니, 그를 돕는 사람, 곧 그
19 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.” ○ 주 하나
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
로 빚어서 만드시고,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
셔서,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
를 보셨다. 그 사람이 살아 있는 동물 하나하
나를 이르는 것이,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
20 었다. ○ 그 사람이 모든 짐짐승과 공중의 새

가. 히, ‘아담’ 나. 시리아어 오경과 칠십인역과 시리아어역을 따름. 히, ‘이렛날까지’ 다. 히, ‘아디람’

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다. 그러나 그 ¹남자를 돕는 사람, 곧 그의 짝이 없었다. ○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²깊이 잠들게 하셨다. 그가 잠든 사이에,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,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. ○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²²뺏아 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오,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. ○ 그 때에 그 남자 ²³가 말하였다.

“이제야 나타났구나, 이 사람!
뼈도 나의 뼈, 살도 나의 살,
¹남자에게서 나왔으니
²“여자라고 부를 것이다.”

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 ²⁴나,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. ○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 ²⁵나, 부끄러워하지 않았다.

사람의 불순종

3 뱀은,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.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. “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,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?” ○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. ² “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. ○ 그러나 하나님은, 동산 한가운데 ³ 있는 나무의 열매는,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. 여기면,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.” ○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. “너희는 절대 ⁴로 죽지 않는다. ○ 하나님은, 너희가 그 나무 ⁵ 열매를 먹으면,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, 하나님처럼 되어서,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오,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.” ○ 여자가 그 ⁶ 나무의 열매를 보니, 먹음직도 하고, 보암직도 하였다. 그뿐만 아니라,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.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,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, 그

도 그것을 먹었다. ○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⁷ 밝아져서,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,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, 몸을 가렸다.

그 남자와 그 아내는, 날이 저물고 바람이 ⁸ 서늘할 때에,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.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낫을 피하여서,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. ○ ⁹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“네가 어디에 있느냐?” 하고 물으셨다. ○ “하나님께서 동 ¹⁰ 산을 거니시는 소리를, 제가 들었습니다.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”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. ○ 하나님이 물으시기를 “네가 ¹¹ 벗은 몸이라고, 누가 알려주더냐?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, 내가 먹었느냐?” 하시니, ○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 ¹²다. “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,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,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.” ○ 주 ¹³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. “너는 어찌다가,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?”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. “뱀이 저를 피어서 먹었습니다.”

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다

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. ¹⁴ “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, 모든 짐승들과 들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,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,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.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, ¹⁵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.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,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.”

¹ 히. ‘아담’ ² 히. ‘이슈’ ³ 히. ‘잇사’

- 16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.
 “내가 너에게
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,
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.
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
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.”
- 17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. “네가 아
 내의 말을 듣고서,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
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,
 이제,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.
 너는,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,
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.
- 18 땅은 너에게
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.
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.
- 19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,
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.
 그 때까지,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,
 낱알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.
 너는 흙이니,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.”
- 20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‘하와라고 하
 였다.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
 21 때문이다. ○ 주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서,
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 주셨다.

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나다

- 22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. “보아라, 이 사
 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, 선과 악을 알게
 되었다.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, 생명나무의
 열매까지 따서 먹고,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
 23 된다.” ○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
 에서 내쫓으시고,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, 흙
 24 을 갈게 하셨다. ○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, 에
 덴 동산의 동쪽에 ‘그림들을 세우시고, 빙빙
 도는 불칼을 두셔서,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
 지키게 하셨다.

ㄱ. ‘생명’ ㄴ. 살아 있는 피조물, 낯개와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(겔 1:5-12; 10:21) ㄷ. 또는 ‘그 남자가’ ㄹ. 히브리어 동사 ‘원하다’(또는 ‘생산하다’)의 발음이 기인이라는 말과 비슷함 ㅁ. 사마리아 오경과 칠십인역과 불가타와 시리아어역을 따름